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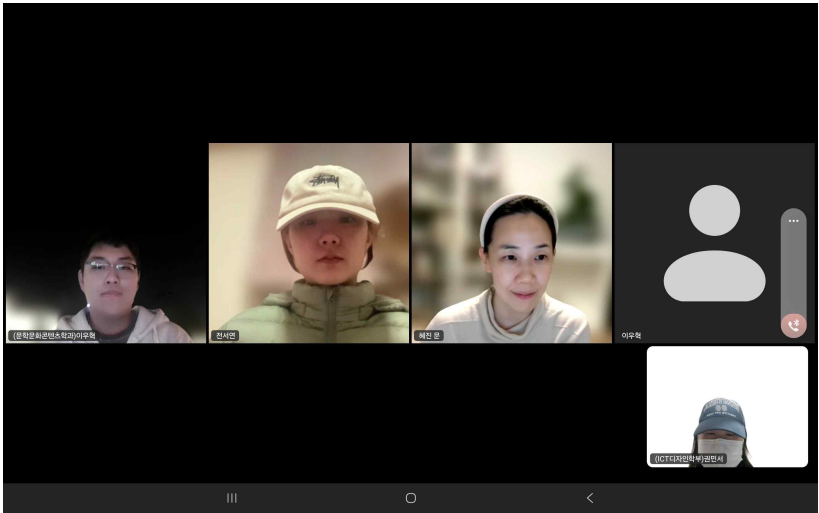


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- 책다방

1주차	일시	10월 15일 12:00 비대면 모임(ZOOM)	
	참여 학생	클럽원 정보	참석 여부
		전서연(2351093)	O
		권민서(2553043)	X
		이우혁(2592014)	O
		-	-
		-	-
	진도	도서명: 기적을 내리는 트렁카 다방	진도페이지: 5p.~ 80p.
	토론 내용	<div data-bbox="525 687 1457 1211"> </div> <p>[좌측부터 이우혁, 전서연]</p> <p>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과 그 이유를 발표하고 자신이 챕터1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. 또한 고양이는 책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징일지 의견을 나누어보았다.</p> <p>전서연 : “무재해로 갑시다!” - 유키무라의 엉뚱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고 정말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다. 만약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유키무라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것 같다.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신고할 것 같기도 하다. 고양이의 존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.</p> <p>이우혁 : 유키무라가 주인공에게 전생 이야기를 하며 손을 덥석 잡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. 만약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유키무라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 신고했을 것 같다.</p>	

2주차	일시	10월 29일 12:00 그라찌에	
	참여 학생	클럽원 정보	참석 여부
		전서연(2351093)	O
		권민서(2553043)	O
		이우혁(2592014)	X
		-	-
		-	-
	진도	도서명: 기적을 내리는 트렁카 다방	진도페이지: 81p.~ 110p.
	토론 내용		
		[좌측부터 권민서, 전서연, 문혜진 교수님]	
		<p>책의 내용 중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장면 또는 요소를 선정해 의견을 나누고 챗터1의 결말을 예상 해보았으며 책의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.</p> <p>문혜진 교수님 :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유키무라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나요? 책 중 주인공의 행동은 본인이 남자였고 상대는 여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. 아마 두 인물의 성별이 반대였다면 저번 독서 토론 때 나왔던 의견처럼 두 인물이 가까워지기 어려웠을 것이다. 챗터1의 결말은 주인공과 유키무라가 결국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 두 인물이 서로에게 가진 감정이 사랑뿐만이 아니라 동정과 같은 감정이기때 연인 관계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.</p> <p>전서연 : 교수님의 의견과 비슷하다. 주인공과 유키무라는 연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. 주인공과 유키무라에게 있었던 사건들이 두 인물의 사이를 가까워지도록 만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. 책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은 친구 관계에서 겪어본 적이 있다.</p> <p>권민서 : 주인공과 유키무라는 이후에 연인 관계가 될 것 같다. 왜냐하면 두 인물이 겪었던 사건들이 그들을 더욱 애뜻하게 느껴지고 동질감이 들도록 할 것 같기 때문이다. 또한 이야기 말미에서 서로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. 책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은 친구 관계에서 겪어본 적이 있다.</p>	

3주차	일시	11월 12일 12:00 그라찌에	
	참여 학생	클럽원 정보	참석 여부
		전서연(2351093)	O
		권민서(2553043)	O
		이우혁(2592014)	O
		-	-
		-	-
	진도	도서명: 기적을 내리는 트렁카 다방	진도페이지: 111p ~ 222p.
	토론 내용	<div data-bbox="528 607 1457 1131" data-label="Image"> </div> <p>[좌측부터 권민서, 이우혁, 전서연]</p> <p>책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책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 지어 이야기를 나누었다.</p> <p>전서연 : 사실 히로의 행동들이 잘 이해가 가지않는다.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한다고 해도 사나에에게 불행과 슬픔을 안겨주는 행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.</p> <p>권민서 : 서연님의 의견에 동의한다. 책을 읽으면서도 히로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아서 챕터2의 감정선은 따라가기 힘들었다. 책과 관련된 경험으로는 시간이 지나며 친했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고 소원해졌던 경험이 생각난다. 멀어지는 걸 느꼈을 때 먼저 손을 내밀 걸 그랬나?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.</p> <p>이우혁 : 주인공인 히로의 행동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. 나를 친구로서 소중히 대해주지 않고 자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친구와 멀어진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히로의 행동과 비슷하다고 느꼈다.</p>	

4주차	일시	12월 8일 19:50 비대면 모임(ZOOM)	
	참여 학생	클럽원 정보	참석 여부
		전서연(2351093)	O
		권민서(2553043)	O
		이우혁(2592014)	O
		-	-
		-	-
	진도	도서명: 기적을 내리는 트렁카 다방	진도페이지: 223p ~ 335p.
	토론 내용	<div data-bbox="528 607 1457 1131">  </div> <p>[좌측부터 이우혁, 전서연, 문혜진 교수님, 권민서]</p> <p>책에 나온 내용들 중 이야기 하고싶었던 장면이나 요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독서클럽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이야기하였다</p> <p>문혜진 교수님 : '기적을 내리는 트렁카 다방'이라는 책 자체가 무거운 내용이거나 개인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닌 일본 소설책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.</p> <p>전서연 : 사실 책을 선정할 때 책의 목차나 내용을 살펴보고 고른 것이 아니라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고 읽고싶은 마음이 들어 고르게 되었다. 그런데 내가 추천한 책으로 독서클럽을 진행하게 되어 좋았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이 책은 가볍게 읽고 이야기하기 좋았다.</p> <p>권민서 : 올해 책을 많이 읽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독서클럽을 참여 하였지만 독서클럽 활동을 하며 다른 나이대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. 또한 여러 장르를 읽기보다는 읽고 싶은 책만 읽는 습관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책을 읽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.</p> <p>이우혁 : 책 속에 나온 트렁카 다방과 같은 장소가 현실, 일상 생활에도 존재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.</p>	

활동 후기	No.	클럽원 정보	후기 내용
	1	전서연 (2351093)	기적을 내리는 트렁카 다방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. 잔잔한 전개 속에서도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다정하게 전해져 끝까지 몰입하며 읽을 수 있었다. 읽고 나니 괜히 마음이 말랑해진 듯해 기분 좋은 여운이 오래 남았다.
	2	권민서 (2553043)	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가벼운 내용의 일본 소설이라서 독서 토론을 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 걱정을 했다. 그러나 책을 읽고 활동을 하면서 일상같은 내용의 소설에도 인물들이 살아가고 그 인물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책의 내용 중 '재회란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상적인 기적이다'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한다. 재회라는 기적은 매일 찾아오기도 하지만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설 속 인물들처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
	3	이우혁 (2592014)	기적을 내리는 트렁카 다방을 읽고 우리 주변에도 사람과 함께 정을 쌓는 장소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. 내용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고, 사람의 내면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았다.
	4	-	-
	5	-	-